지역간 연계 ·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

을 통하여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뿐 아니라 분산투자 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결합생산을 통하여 투입 대비 추가이익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추진역량을 중대시키고 임계수요(criticalthreshold)를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해야 한다.

Ⅱ.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실태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미 2010년과
하였으며, 2012년에는 신규사업 5개를 추가하여
. 먼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시 · 도의
진 후, 관계부처가 연계협력도,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을

수립하면서 총 339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두 차례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이 중 12개 사업에 대해 2011년부터 광특
지원하고 있다.
력사업은 시 · 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 ·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전 · 후방 연계효과를
간 연계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에서 제출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지경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총 3년 이내인데, 1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2010년 30개 사업에 대한 540억원의 지원을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다. 한편 초광역개발권의 연계협력사업은 동서남해안 인접

“
바쁘신 중에 인터뷰를 허

”

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 지역 그리고 국가간 경제 및 교류활동의 범위도 행정구역을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5+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의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전국을 7개로 나눈 광역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은 그 중 하나의 광역경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과 시 · 도간 연계 협력 추진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9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 · 인천광역시장 · 경기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내 교수 · 경제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는 60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 인천 · 경기가 함께 공동의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주요 발전자원을 도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과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 자체적으로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내 20여개의 광역협력 사무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